

AUTHOR 김응수

TITLE 개혁주의 신조신학에 대하여

IN 월간고신

127호 (4, 1992): 5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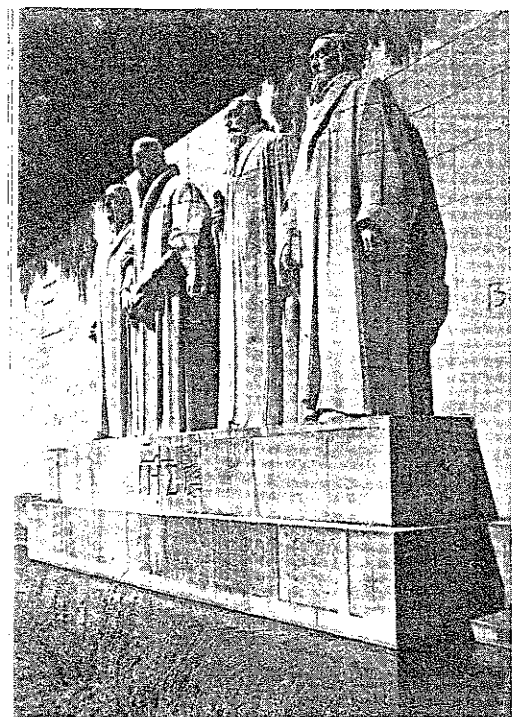
128호 (5, 1992): 56-57.

130호 (7, 1992): 104-107.

132호 (9, 1992): 68-71.

134호 (11, 1992): 89-91.

135호 (12, 1992): 54-57.



종교개혁의 인물들 - 제네바 -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삼립주들은 이에 대항하여 약 8천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취리히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간의 종교전쟁이었다.

의 교회가 양대세력으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어떻든 1530년 전후의 스위스의 상황은 긴박하였다.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전원이 감돌고 있었다. 쾰빙글리는 천주교측의 선재공격을 내심 두려워하였고, 천주교주들에 대한 밀, 소금, 포도주, 철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경제 봉쇄령을 내렸다.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삼립주들은 이에 대항하여 1531년 10월 11일, 약 8천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취리히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프로테

스탄트와 천주교간의 종교전쟁이었다. 취리히는 카펠에서 이들과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쾰빙글리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취리히측의 전사자는 4백명 이상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26명의 시의회 의원과 25명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Lewis W. Spitz, 종교개혁사, p. 166) 취리히가 패전한 가운데 이 전투는 휴전이 이루어졌다. 이때 체결된 조약이 '제2차 카펠평화조약'(The second peace of cappel, 1531. 11. 20)이다. 이 조약은 프로테스탄트측에는 불리한 것이었다. 즉 프로테스탄트는 더 이상의 영토확장이 금지되고 현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고 프로테스탄트지역에서의 천주교도의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를 지지하는 주에 속한 신교도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취리히에서는 프로테스탄트신앙과 예배가 허용되었으나 종교개혁의 확장은 중지시킨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역사가 지난 후 돌이켜 볼 때 카펠전투에서의 패배는 오랜기간 스위스에서의 신앙고백적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까지 천주교를 지지하는 주들과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주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 된 것이다.

쾰빙글리가 죽은 후 스위스개혁운동은 레오쥬드(Leo Jud)와 특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 1504-1575)에 의해 계승되었다. 불링거는 브렘가르텐(Bremgarten) 출신의 성직자로서 쾰빙글리의 후계자이고, 사위이며, 전기작가이기도 했다. **근시**

## 개혁주의 신조신학에 대하여 (1)

# 신조의 가치는 얼마만큼 성경과 일치하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신조신학은 신앙고백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조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김 응 수 / 안의교회 목사 거창노회장

**개혁** 주의 신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학문적인 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며 개혁주의 신조신학에 대한 연구 논문은 더욱 부족하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조신학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혁주의신조의 범위가 너무 넓고 어디까지가 개혁주의 신조이며 어디부터가 아닌지 그 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개혁주의 신조로 취급되는 것이 60여개가 있는데 혹자의 경우에는 60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는 30여개로 헤아리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개혁주의 자체가 지금도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개혁교회 이전에는 신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천주교회에 신조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없다고 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들은 교회가 곧 신조이기 때문

에 신앙고백이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통일된 신조가 없다. 그것의 가치 기준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신앙의 선배들이 각기 독특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독특한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면 되었지 약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지역과 시대를 따라 개혁교회들이 각기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상 우리들에게 대단히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개혁주의 신조의 역사적 성립과정을 살피고 그 내용과 의의를 가려서 통일된 신학을 찾아 참된 개혁주의신조 신학방법을 얻어보고자 한다.

## 개혁주의 신조 현장 신조 발생 현상

로마카톨릭 교회는 신조가 있는 교회(고백교회)가 아니다. 저들은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부족한 점을 느끼지 않는다. 이유는 로마카톨릭

교회가 행사하는 교리 표명은 바로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카톨릭 교회 자신들의 이해에 의하면 “교회의 표명은 곧 성령님의 계시”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리를 표명하는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타적 의미로 말한다면, 로마천주교회가 표명한 교리는 곧 로마카톨릭 교회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 자신의 표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앙고백을 위한 신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로마카톨릭 교회이므로 로마카톨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발표하는 제 교리는 곧 그리스도 자신의 발표이니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성경속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오늘의 로마카톨릭 교회의 발표는 그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비하여 전연 손색이 없는 동등한 것이었다. 여기에 반하여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한 제 신조 발생의 현상은 곧 종교개혁의 특징적 현상이었다. 종교개혁이 여러 신조들을 발생케 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개혁적 신앙만이 신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약의 고백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니이다”라는 구약의 고백이 곧 신조의 고백적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신앙인들의 성경에 근거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 이후 역사를 거둬들이는 가운데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그 결과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 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신조 신학은 신앙 고백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조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그 신조의 명칭과 정의

기독교 선교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소멸, 또는 변질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예를들면 중국의 경교라든지 애굽이나 아프리카에 전파된 기독교가 그러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조가 발전하지 못한 데에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가 선교에 성공하고 또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정착되어 뿌리를 잘 내린 것은 역시 신조가 분명하고 계속해서 발전, 개혁되어 간 것에 연유한다.

신조에는 역사적 발전 단계가 있다. 신조는 기독교 교리의 역사적 이정표와 같다고 할 것이다. 성경적 또는 신학적, 신앙적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신조 또한 발전·개혁되어 왔다.

심령이 신앙으로 뜨거울 때 자기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다. 이것을 글로 나타냈을 때 신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앙고백이 아닌 공교회가 조직적으로 저들의 신앙을 정리해서 고백문을 채택했을 때, 이것을 신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문답서” “신앙고백” “신조” 등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신앙이란 원래가 고백적인 것이다. 신앙 그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이다. 같은 신앙고백이 있어서 함께 공동으로 신앙고백을 택할 때 그것이 고백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고백을 발체, 요약하여 내걸은 것이 신조이고, 고백문을 신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답서라 할 것이다.

### 신조의 권위와 가치와 용도

개혁주의는 신조의 권위를 높이지만, 다른 모든 인간의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고, 언제나 더 좋은 성경적 신조가 발견되어 주장되면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신조의 가치는 얼마만큼 성경과 일치하는가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신조는 그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다. 개혁주의는 신조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개혁교회가 곧 신조주의 교회는 절대 아니다. 신조 절대주의는 무서운 독재를 낳을 위험이 있다. 로마카톨릭은 오히려 신조절대주의 교회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 교회를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신조를 고백하고 타 신조를 배격하며 우리의 교회정치나 예배의식과 교리를 특별히 제정한다. 그 제정하는 바는 언제나 더욱 성경적이며 또 우리의 주장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 때, 수정하여 더욱 성경에 가까운 교리로 택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교회교육에 있어서 초신자 신앙교육에 유용하며 교회행정과 정치에 적용할 뿐 아니라, 세상과 이교사상과

**신조의 가치는 얼마만큼 성경과 일치하는가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신조는 그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다. 개혁주의는 신조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개혁교회가 곧 신조주의 교회는 절대 아니다.**

이단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데 울타리와 같이, 또는 성벽과 같이 유용한 것이다. 개혁주의 신조는 그 목적이 신앙에 있고 성경에서 내용을 판단받으며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 우리의 믿는 바가 가장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엄숙하게 주님께 대해 우리의 신앙하는 바를 고백하고 선서한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으며 그 반석(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다. 빌립은 구스내시의 신앙고백을 듣고 즉시 물로 내려가 세례를 주었다. 그러므로 원시 기독교는 신앙고백이 문서로 되기 전부터 신조가 사실상 있어 왔고, 세례로 입교시킬 때 이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흐름에 따라 신앙의 규범이 확실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또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인해 공동고백이 필요했던 것이다.

칼빈은 사실상 제네바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형성할 때 신앙입문, 신앙문답, 신조(제네바신조) 등으로 신자를 교육시키고 문답하며 교회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였다. 제네바가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 시의회에서 신앙고백을 채택한 것이 1536년 11월에 있었다.

**고지**

# 개혁주의 신조의

# 결정적인 특징

김 응 수 / 안의교회 목사

## 제네바 신조문답

**칼빈** 이 스트라스버그 교회서 봉사하다가 제네바 교회로 재차 귀환한 후, 1543년에 불어로 초안하여 1545년에 목회에 적용키 위해서 이 '제네바 신조문답'을 출판하였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번역문을 달아서 공포하였다. 이 "제네바 신조"의 전신은 역시 칼빈이 1537년에 발표한 "소 교리 문답"이라 볼 수 있다.

칼빈의 '제네바 신조'를 초안케 한 배경을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 "소 교리 문답"외에 스트라스버그에서 교회교육용으로 사용한 "교리교육"이란 소책자가 있고 또 목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제네바 교회의 새로운 형성" 등의 책자와 함께 서너 가지가 더 있다.

신앙 문답서 문학의 역사를 살핀다면 제네바 신조는(제네바 신앙문답이라고도 함)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늘날 고전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신조는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하고 있고 어린이나 초신자 교육을 목적으로, 대화식으로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교과서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반드시 아동들을 향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과 또 대답이 결정적인 확신으로 답이 끝나는 점 등은 현대에 와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으나 종교개혁적 문답서로서 또 개혁주의 신조 교육에 있어서는 더 없이 총족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학적 원리에 기초된 것은 아니다. 그 신앙 문답은 자기 이해에 있어서 교사들을 위해 또는 말씀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의 신앙교육의 수준을 내포하고 있다.

칼빈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문답형식의 처음 두 가지 강요 출판의 체계와 이 신조문답체계를 결부시킨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 제네바 신조문답은 1539년의 강요 제2판과 1543년의 강요 제3판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기독교 강요" 저술의 발전에 있어 빼 수 없는 의의를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칼빈은 말하자면 신조문답이라는 표현 방식을 빌려서 제2판의 강요를 그리고 그 입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제3판 강요를 발표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제네바 신조문답 이 외에 세번째 강

요를 정정하고 있는데, 모름지기 칼빈은 양쪽 일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체계적이고 명확하며 실천적이며 또 신학적으로 정리된 제네바 신조문답이 발표되자마자 그 보급은 놀라웠다. 먼저 독일어권을 포함한 스위스 전 지역 다음으로는 1571년 이래 위그노파 교회들에, 또 1578년 이후에는 화란에, 그리고 그 후로는 스코틀랜드, 폴란드, 헝가리 등으로 불같이 번져 나갔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실천적이며 신학적인 것으로 373문과 답이 있다. 독자와 교사를 위한 두 가지 서문이 있고 매일 매일을 위해 열두 가지 기도문도 실려 있다. 성일과 절기를 위해서 특별문답이 사이사이에 끼여 있고 또 한 주간씩 사용하기 위해 55항으로 나누어져 52주일과 3절기에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문답은 서문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서로서 또한 가정에서 가정교육용으로 또는 가정예배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네바 신조문답은 그 형식이 신학적이면서 체계적이라고 했는데, 양자가

잘 조화되어 별 무리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앙에 대해서(1문~21문)
- 둘째, 율법에 대해서(21~33문)
- 셋째, 기도에 대해서(34문~43문)
- 넷째, 성례에 대해서(44문~55문)

이 제네바 신조는 나중에 영국교회 요리문답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웨스터민스터 문답서 등에 결정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제네바 신조문답은 그 내용의 특이함이 연역적이지 아니라 귀납적이라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첫 마디는 앞으로 논의하게 될 모든 원리들과 조목들의 분명한 규범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사교의 출발점으로 삼고 피조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독교의 역사, 교리, 규범의 기점과 근본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 문답은 자연스럽고도 합법적인 논리로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교의 우선되는 원리부터 취급하여 기독교의 능력이 최대한 입증되도록 전개하는 문답이라 특징지을 수 있다. [계속]

# 제네바 신조문답의 특징들

김 응 수 안의교회 목사 본지 운영위원

**다음으로** 제네바 신조문답의 조문을 순서에 따라서 관련된 점을 찾아보고 또 이를 분석·종합해서 그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536년 이래 칼빈은 기독교 강요처럼 제네바 신조문답도 인생의 중심목표에서 문답을 시작하고 있다. 인생의 중심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또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1문 이하). 이를 위해 인간은 창조되었고, 또 존재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인간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은 같은 것으로써 범사가 하나님께 의해 예정되고 있다. 우리의 기도도 주께 영광돌리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보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동시에 우리들의 유익 되지 못한 것은 어떤 것 하나라도 없도록...”(258문).

이와같은 기도는 개혁주의 여러 신조

가운데 모범적인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용으로 봐서 네 부분으로 갈라져 있다.

- 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 ②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 ③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 ④ 모든 유익한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 등이다.

이는 또한 신조문답 구성이 네 부분으로 된 것을 상기하게도 한다. 말하자면 ① 신앙의 조건 ② 율법 ③ 기도 ④ 성례전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 또 사랑이 무한하신 분으로 아는 것만으로써 부족하다(9문이하). 이런 고백의 배후에는 인간의 인식과 실존의 성취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 영역의 내부에서 인식 가능성을 가짐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다. 만일 실존 영역이 넓어지고 또 변경된다면 인간의 인식은 넓어지거나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이 신앙문답에서는 우리들의 죄 인식이 사죄인식과 일치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조문답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를 인식함에 필연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제1조항이나 제2조항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이를 비롯하는 것이 아니고 문답 도입부에서부터 벌써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명은 내용적으로 제22문에서 취급되고 있고 거기서 사도신경 제1조항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원한 말씀으로써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의 관점에서 성부에 대해 언급 되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되심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 문답은 강하게 2중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만이 “처음이요 만물의 근원이신 이”에 대한 중세 창조신학에서 철학적 개념이 이해될 법한 것이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신앙과 율법’이란 중심교리의 순서에 있어서 ‘율법과 신앙’

이 아니라 신조의 체계적 배열에 새로운 예를 남겨 율법과 복음의 가치분할에 지극한 새로움을 보이고 있다. 이 ‘신앙과 율법’이란 두 개의 부분이 위치적 순서가 아니고 피차 상응하고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찰함에 있다. 이 두 관계는 처음 도입부의 문답에서 시작하여 제1조항에서 언급하고 제1부를 닫는 부분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회개에 대한 표명이(제128문)신앙에 대한 제1부에서 언급될 뿐만아니라 율법에 대한 제2부에 건너와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연중 축제일과 또 매주일들을 위해 분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신앙과 율법에 대한 제1부의 마지막과 제2부의 처음 부분 회개에 대한 조문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율법과 신앙, 양쪽 부분에서 내용을 발췌해 양쪽을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체계상의 순서는 교회 질서상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교회질서에 대한 문답은 복음과 율법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조문들 가운데 안배 되어 있다.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그 복

음에 의해 팔호 안으로 취급 되어 있다. 율법에 대한 마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명령을 가르침으로써 끝을 맺고 (217문이 하) 이 인용구는 이로써 끝내고 있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율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그것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십계명 (213문)은 예수님의 율법해석에 따르고 있다. 율법 전체의 간단한 요약은 (217문) 이 십계명에 대한 율법의 중대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권고는 이와같은 율법의 해석으로써 율법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중에 있는 율법, 즉 신약신학적으로 이해되는 율법을 가르침에 있었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로마서 1장 20절을 중심 삼아,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후속의 여러 개혁주의 신조 중에서도 벨직신조는 이 제네바 신조 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울로써 고백되고 있다. 이 고백이 자기 이해에 있어 정당하게 평가 받으려면 세 가지 면에서 확실해져야 하는 것이 있다.

① 첫째, 사람의 이성적인 신(神)인식 논리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귀납적이며 타율적 신(神)인식이 강조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② 둘째, 만물창조에 대한 신의 자아 계시는 말하기 좋아서 그러기보다 긍정

적이든지 또는 부정적이든지 사종일관 주장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③ 셋째, 하나님께 대한 기억하는 힘, 즉 악행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흥미를 끄는 것은 제네바 신조문답이 주기도문 최후의 기원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악과 악마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양쪽 다 루터의 표현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개혁주의 입장의 여러 신조는 그 이후 성경원본이나 내용에 있어서 본문을 악한 자에 대한 것으로 말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네바 신조문답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양성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리스도론이고 또 삼직론(三職論)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업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론이다. 이 두 가지 기초 이론은 하이델 베르그 신조문답의 모범으로도 되어 있다. 양성론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업과 그 직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론으로 되어 있다. 분리해서 취급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업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기초하여 있고 그리스도의 양성적 인격은 그의 성업, 특히 그의 왕직에 있어 표현되고 있다.

제네바 신앙문답의 특이성은 (여기서도 하이델베르그 신조문답(문31~32)의 모범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삼직론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임무 중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직분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취급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성업에 있어 교회 안에 조금도 결함 없이 그리스도로서 현립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업 즉 제사 직분과 선지 직분에 직접 관계한다 (45문).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의 다른 모든 은사와 함께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분한 분량은 (엡 4:7) 각인에게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들은 마치 샘에서 물 마시듯 그에게로부터 우리 모두의 영적 욕망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심에 대한 개혁과 교회 특유의 해석으로 만족된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신 것을 꼭 끌고다와 부활절 사이에 사자의 세계로 가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적으로 그 관계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필설로 형용키 어려운 일이지만 저주 받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사망의 심연에 빠져 낮아지심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발표한다면 음부로 내려가심(낮아지심)은 끌고다의 예수께서 자기 실존의 실현이고 또 우리 인생의 사망에 이르는 생명, 그 파괴적인 불행과 버림당함을 받아들이는 일인 것이다.

**고지**

# 우수 논문상

## 논문현상 공모

본 연구소는 한국교회의 문화침달 및 신학교들의 집필능력을 증진시켜 창의적이며,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수논문을 공모합니다.

1. 주 제: 신학 계분야에 관한 주제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단, 매학기 학과목 과제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논문(Term Paper).
2. 참가대상: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생
3. 상 금: 당선작 5편, 각 편당 10만원
4. 특 전: 선정된 논문은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 혹은 「고려신학보」, 「월간고신」, 「기독교보」 등에 “우수논문상 수상작”이라는 설명 및 저자소개와 함께 게재 추천됨.
5. 작성요령과 평가기준:
  - 주제의 중요성
  - 독창성
  - 설득력 있는 논지
  - 통찰력
  - 논리적 전개
  - 사상전달의 명료성
 ※ 당 학기 학과목 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하므로 학기명, 해당 과목명, 교수명을 명시할 것.
6. 제 출 처: 교회문제 연구소(본교 송도 캠퍼스 3층)
7. 제출미감: 매학기 종강일까지
8. 발표 및 시상: 매학기 개강예배시

## 교회문제연구소

# 제네바 신조문답의 특징들

모든 피조물에 충만해 있고  
그러나 지금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덕과 힘이 되신 성령  
“혼합도 아니지만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은  
가현설의 오류를 방지하고, 화체설의  
해석도 마술적인 오해를 방지하는 것

김 응 수 안의교회 목사



**이와같이** 음부로의 낮아지심 이 틀림없이 십자가 상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낮아지신 사실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에게까지 낮아지신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 유기로 이해 된다면 곤란하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심을 제네바 신조는 66문 이하에서 “...하듯이”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의 신성은 얼마동안 은폐되어 그 힘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제네바68).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외침에 대해서 이와같은 해석은 다른 개혁주의 여러 신조들에 모범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다. 히브리어 “라마 사박다니”는 말하자면 “또는”, “하듯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뜻을 넘어서 “버리다”라는 현실성을 표현

하고자 하는 편이 더욱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후속의 여러신조가 제네바신조문답의 지도아래 있지만 결코 무비판적으로는 아니었다. 심지어 수난의 깊이에 있어서 루터파의 고백도 배우고자하는 용의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버렸다”의 기각의 진실성을 묻기보다 “왜”(라마)의 의미에 있어 “무엇 때문에”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기가까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현림에 있어서는 육체에 대한 현림은 부정되었는데 즉 그리스도는 널리 부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신다고 이해되었다. 즉 현림은 그리스도 자신의 현림인데 그의 능력의 현림이고 제네바 신조 문답의 이해에 의한다면 성령으로의 현림인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충만

케 하심이다(제네바 91).  
성령의 조명에 대해 인치심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성례전의 용어 특히 성찬의 용어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 신조문답에서 개혁주의 제 신조의 특징적인 성례전 이해가 처음으로 함께 공감되고 있는데 그 이해는 칼케돈 회의의 의미에 있어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고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에 기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구별의 계기는 육체에 의한 현림은 부인하지만 구별되지 않는 계기는 기독교적 성령론적인 현림과 편재의 고백으로 인한다. 그것은 삼위론 신학이고 그 신학의 기초 형태를 이미 벌써 규정 짓고 왔는데 “구별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되지 않는다”(문20)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 충만해 있고 그러나 지금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덕과 힘이 되신 성령 “혼합도 아니지만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은 가현설의 오류를 방지하고 화체설의 해석도 마술적인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성례전의 이 선을 이미 넓히기 전에 주요 구성의 순서에 따라 교회 신앙 성화 기도의 문제로 향해 진행한다.

● 제네바 신조문답에 있어(문92이하) 교회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열매로서의 신자, 결국 선택된 무리들의 공동체이다. 제네바 신조문답에 있어 하이델베르크 신조문답의 모범이 되었지만 선택은 이 교회론의 현장에 나타난다. 이 중 예정의 의미가 있고 예정론은 이 신조 문답에서는 오직 한번 그것도 확실하게 우연히 제2계명(문157)을 거론하게 된 것이 분

명하다.  
제2계명의 위력의 말씀 “하나님은 노여워 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고”는 로마서 9장의 버리심의 말씀(9:15~22)과 연결되어진다. 선택과 유기 이것은 어거스틴 이래 이 예정설의 혼돈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일치는 신조문답이 전면 그 인용을 삼가하고 있다. 그리스도 그자신 성도의 교제(공동체)에 있어 그의 현림과 그의 성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몸으로써의 일치이며 몸된 교회의 지체로써의 일치를 가르치고 있다. 그 한계는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뿐이다(제네바 97).

● 이 신조 문답에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문111) 하이델 베르크 신조 문답의 기본이 되었지만 그것은 위대하거나 또는 지극히 왜소하거나 혹은 진정하거나 또는 참되지 못한 신앙 등을 문제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진리인 신앙, 진리에 기초를 둔 신앙, 신앙에 기초한 삶의 진리를 문제하는 것이다.

확신과 불변의 근거는 택하심과 인치심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의로서 인식되며 신뢰되는 바탕으로서 그 위에 서는 것이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신앙이 의롭다함을 알고 그 의인(義認)을 신뢰하며 받아 들인다는 의미로써 의롭다함과 신앙을 연결시킬 뿐 아니라 신앙이 그 생명의 실현에 있어 의롭다함을 필요로 하는 의미로도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신앙의 의롭다함을 선행의 의롭다함을 내포하는 것이다. 선

행은 의롭다함을 필요로 하고 있다(문 121). 선행 그 자체가 의는 아니다. 그러나 무용한 것도 역시 아니다. 참된 선은 신앙의 뿌리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에 근거한 선을 하나님은 올바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십계명 해석에 있어 제네바 신조문답은 제4계명에 대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안식일은 구약교회에 있어 휴식의 날이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상대적일 뿐이고 안식일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안식일은 휴식하고 영적 안식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그 반면 하나님 예배에 시간을 쓰고 집안 일꾼들을 휴식케 할 것이다. 이 안식일 문제는 주석적 체계적이기 보다 실천적이며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개혁주의 제 신조에 있어 성례전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그 특수성이 눈에 띈다. 첫째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기 전 일반적인 성례전의 정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네바 신조문답도 역시 성례전론의 내부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다(문300이하). 거기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성례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 되어야 만이 이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성례전과 같은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림과 성령의 역사 하심은 모아진 무리 중에 성례전 집행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있어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말씀 선포와 함께 그의 교회에 현림하시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성례전이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 곧 성례전인 것이다.

제네바 신조문답은 성례전을 네 가지로 정의한다(문300~320).

- ① 은혜의 외적 증거
- ② 보이는 성령의 인



### ③ 언약의 인치심

④ 불변의 언약 등이다. 보이는 예전은 종속적인 수단으로써 상징적이고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힘이 능력의 증거이다.

이 신조문답은 지상의 인치심에 한 한 다거나 지상에서의 인치심에 어떤 것의 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성례전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도장이며 표식인 것이다(문362). 성례전의 외적인 인이 종속적인 도구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례전의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문318). 불신자와 악인들이 성례전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대해 무로 할찌라도(문318) 그렇다고 해서 성례전의 본질이 어느 한 가지라도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공통의 성례전론에 대해 제네바 신조문답은(문321) 세례의 물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고 세례식 그 자체를 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용서와 거듭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같은 이중의 고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비슷한 예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문답은 답하지만 결국은 피차 끊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시 되어서도 안된다고 역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상징과 현실성이 연결되어 있어 물 세례로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문328).

성례전의 효과와 그 받아 들임이 신앙에 의존한다고 개혁주의 제 신조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해일 것이다. 불신자가 흑시 먹는 일이 있음에 대해서 루터 피의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이

야기 하겠지만 성례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 그 효과는 신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함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를 강조하고 유아세례를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데 유아들은 사물을 분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서 비로소 세례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다(문334). 유아세례의 기초는 종속적인 유아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교회의 할례에 해당하는 언약의 인으로서 세례의 은혜가 자신속에 존재하는 것이다(문334).

제네바 신조문답은 또한 성찬식에 대해서도 분리할 수 없는, 그러나 동일시 할 수 없는 성찬의 상징과 임재하심에 대해 문340에서 인상깊이 고백하고 있다. 상징과 임재에 대해서는 "...마치" 또는 "...동재"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 성찬의 수령은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된다(문344). 수령은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신앙자체는 말씀선포와 성례전을 통해 선포되고 자라난다(문345).

이 신조문답은 성례전의 집행이 단지 상징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현상인가 하는 비판적 질문도 하고 있는데 참여와 일체의 현실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문353)고 답하고 있다. 그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지금 우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의 피를 마시운다. 이렇게 되어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에 포함되어 자라 가는 것이다(문346).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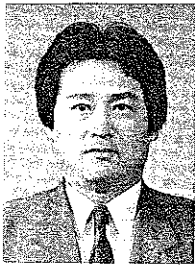
# 석 광 당



금

보석 \* 시계

대표 **배 문 호**  
(삼일교회 장로)



부산시 중구 신창동 2가 16-3  
<삼천리 백화점 후문 건너편 2층>  
금부 : 245-1744, 463-3035(차)  
254-2443(직)



할렐루야!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웨-딩 드레스가 현재 시중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에 결혼 비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에서 유행되는 최신 디자인과 깨끗하고 싼 가격으로 봉사하고자 하오니 일차 저희 백화점에 오셔서 가격과 웨-딩 드레스를 보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웨-딩 드레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오직 주안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결혼식이 될수 있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사진, 비디오촬영전문(3관식 3CCD 방송용 카메라)



## 백합웨-딩드레스

(서면 기독교방송국 교회백화점)

신 찬 석 집사(부곡중앙교회)

TEL. 806-3732

508-3779

개혁주의 신조신학에 대하여 ⑤

# 취리히 일치(一致) 신조

김응수 안의교회 목사, 본지 운영위원

**취리히** 협정 (consensus Tigurinus)이라 불리는 취리히 일치신조는 제네바 신조문답의 성례전의 교리를 쾰빙글리의 개혁에 후퇴한 동 스위스의 교회에 가깝게 할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 신조가 생기기 앞서 네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 이야기는 루터와 쾰빙글리의 차이를 새롭게 명시하려고 1544년, 루터의 손에 의해 저작된 "성례전에 있어 짧은 신앙고백"이란 조문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1545년 쾰빙글리의 정신에 의하여 출판되고 베른시와 샤푸하우젠시에서 채용되어진 부링가의 "취리히의 교회 봉사자들의 진실한 신앙고백"이란 조문이다. 셋째로는 1545년의 베른시의 교회회의를 위해 쓰게 된 칼빈의 "성찬에 관한 20개 조"란 조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칼빈이 파렐과 함께 취리히를 방문했을 때에 토의하고 그때 부링가의 "진실한 신앙고백"에 손을 대어 "취리히의 교회 봉사자들과 제네바의 교회 봉사자 칼빈과의 사이에 성찬론에 관한 일치"라는 제목으로 라틴어

로 쓴 26개의 조문이다. 이상이 그 전사라 할 수 있다. 이 일치신조는 필연적으로 일치한 성격을 가지는 것 외에 제네바 측과 취리히 측이 가능한 타협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그 령에도 불구하고 이 타협적인 일치신조가 제네바 측의 성례전 이해가 동 스위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예를들면 제2 스위스 신조) 역으로 취리히 일치신조의 성례전 이해는 오히려 제네바 쪽에 또 제네바의 영향에 의해 작성된 일련의 여러 신조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예를들면 프랑스 신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베르기 신조).

일치신조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데 있기 보다는 개혁교회의 기타 여러 신조에 과급된 영향이 크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신조문답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공동고백에 도달하기에 부단의 의지를 보여준 영향에 있다. 취리히 일치신조의 주제는 성례전의 교리 특히 "성찬의 교리"이다. 그러나 취리히

일치신조는 성찬식의 교리를 독립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론과 결합해서 또는 그리스도론과 함께 취급하였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론은 계획적으로 성찬론 앞에 취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치신조는 우선 첫째로 간결한 그리스도

성육하심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실 뿐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육하심은 이 그리스도가 성례전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데 있다.

론(1조~5조), 다음으로 성례전의 교리일반(6조~20조),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성찬의 교리(20조~26조)를 고백하고 있다.

취리히 일치신조는 성례전에 “복음에의 덧붙임”이라고 부른다(2조). 그러나 이 말은 성례전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례전을 설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성례전 본질에 관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설명이 되는 경우가 그리스도란 이름에 호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론적이고 구속론적인 의의에 대해서도 바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성례전의 그리스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는 영원한 아들되신 성육하신 하나님이다. 성례전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새로 거듭나게 하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일체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취급된(당시 일치신조 자신이 취급한) 중대한 문제는 “육신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왕이시

며(4조), 우리들의 머리이시고 우리들은 그 분과 연합되어 성장한다.

성육하심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육하심은 이 그리스도가 성례전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데 있다. 이와같이 성례전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에 있는 그의 의를 덧붙이는 데 있다. 인간 측의 행위에 있어 신앙에 언제나 포함되어야 하는 고백과 각성과 감사는 이런 것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쪽의 행위에 있어 교회의 증거, 고백, 인침은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인침 중생 축복을 가져오는 성례전의 선물과 그리스도에의 참여는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업

취리히 일치신조는 성례전에 있어 “증거”와 “증거가 붙여진 것” 사이에

구별을 두는 경우 성례전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증거”와 “증거가 붙여진 것”의 구별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례전 그것은 이미 성례전이 아니고 단지 물과 빵과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례전을 받아들임은 신앙과 그 신앙수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만일 이 고백을 전제하거나 조건한다면 개혁파의 많은 신조에 대해 대단한 오해를 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이 선물을 주는 기관으로, 성례전이 능력과 운동력으로 활동하도록 허락하신다. 결국 신앙은 입이고 성례전은 맛이 되겠다(10조). 이 의미에 있어서 일치신조는 성례전의 활동에 있어서도 선택된 자들 결국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된다(16조). 이 경우 예전에 의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이 의미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불신자는 아무 효력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업

성례전은 수단이고 도구이다(13조). 성례전의 내용에 포함된 그리스도는 동시에 성례전을 집행하시는 주체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시고 또한 자신을 부어 주신다. 이 모든 일체를 주님은 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14조).

#### 성도의 교제에 있는 영적인

#### 그리스도의 사업

그리스도께서는 성례전을 우리가 받기 전에 벌써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은 성찬의 수령 후에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말하자면 성찬 받기 이전의 신앙의 음미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9조). 이 사실은 다른 한편 신앙이 세례로부터 특히 유아세례로부터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20조).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성례전의 집행이란 행위 이상의 것이다. 행위는 존재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존재는 행위 중에 항상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교통하심의 존재와 행위와의 관계된 문제인 것이다. 취리히 일치신조는 세례와 성찬에 관한 신약성경의 교훈이 세례와 성찬의 행위보다 높고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약의 교훈은 세례 속에 그리스도의 교통하심, 성찬 속에 그리스도의 교통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성찬에 있어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장소적인 강림”을 상상한 것은 아니다. 육체에 의한 그리스도의 현림은 부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함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천상에 계시기 때문이다(21조). 일치신조에 의하면 신조문(信條文)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나 성경의 용어 이해에 있어서나 성찬식에 대해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1조]

# 스코틀랜드 신조

## 계약신학사상 기원에 있어 고전적 의의를 가져

김 응 수  
안의교회 목사

스코틀랜드 신조가 탄생하기까지는 싸움으로 점철된 이야기가 앞서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 측에 가담한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영국의 지원군이 하나되고, 이에 대항하여 가즈 가(家)의 메어리 섭정과 프랑스 파견군이 하나되어 이 사이에서 일어난 전사(戰史)가 그것이다. 이 전사에 의하면 존 낙스(John Knox)는 비튼 추기경으로부터 좌천되었다. 다음에는 체포되어 프랑스의 노역선 선부(船夫)로 노역형을 선고 받았다. 형을 받은(1547) 2년 후,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난 후, 자유의회가 신학적인 문제의 정리를 위해 소집되었는데, 그 국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할 교리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것을 필요로 했다. '존 낙스'는 5인의 평의원들과 함께

4일 간의 노력 끝에 영어로 신앙고백문을 기초하였다. 이를 의회에서 낭독한 후, 1560년 드디어 의회가 채택하였다. 이는 스코틀랜드에 있어 개혁교회의 기초를 놓은 셈이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1560년 말에 이 신조를 공 고백으로서 채택하였다. 1577년 라틴어 역이 나왔고 1581년에는 국왕에 의해 서약되었다. 이에 비로소 참된 의미로서 스코틀랜드 왕국의 개혁과 교회에 의해 고백되어진 신앙과 교리의 고백이란 명제가 붙여지게 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신조는 체계적인 구성에서 본다면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특이한 신론에서 교회론, 성례전론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신앙론을 25개조에 걸쳐 전개하고 있다. 순서상 다음의 두 가지가 특징적인데 그 첫

째는, 그리스도의 한 가운데, 즉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설과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한 교설 사이에 예정론을 끼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영원한 그리스도에 의한 선택의 근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선택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업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둘째 특징은 율법론이다. 율법과 복음의 교리로서만이 취급되고 성령론과 교회론과의 사이에, 즉, 성령론의 말미에 놓여져 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생명되심은 그리스도의 율법성취에서 이루어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 눈을 돌리면 첨예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뜨인다. 강조된 대립적인 개념에서 논쟁적인 태도는 개혁자의 전투가(戰)이기도 한 시편 68편이 이 신조를 엮는 언어로 사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의 형식원리에서 본다면 스코틀랜드 신조는 자의적 독자영감설적인 편에서 성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몇몇 예에서 드러난다. 즉, 죄가 들어온 이유(2조),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4조), 예루살렘에 있어 열린 무덤에 대한 소문(10조), 마태복음 23장에 의한 영원한 저주에 관한 표명(11조), 누가복음 16장에 의한 중간상태에 관한 교리(17조), 바다의 땅이 죽은 자를 토해내는 최후 심판에 관한 교리(25조) 등이다.

역사적 순서에 있어 다양한 계시가

취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시대를 따라 계시하시는 방법이 점차적,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역사의 길을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당의 길로써 백성과 함께 걷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포로시대로, 포로시대에서 그리스도의 화육하심으로 되는 것이다(4조, 5조). 그리스도의 강생하심에 대한 성경신학적 계약사상은 신조신학상으로 보아서 자세한 표현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 같다.

스코틀랜드 신조는 계약신학사상 기원에 있어 고전적 의의를 가진다. 현금에 와서 체계화 되고 전승적으로 파급된 계약신학은 이 스코틀랜드 신조가 구상했고 제시하고 있다. 성경이 보이고자 하는 역사는 종말을 향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섭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합리주의적인 진보주의가 아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향해 있다(5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은 때가 왔을 때 이루어지고 있다(6조).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기독교론의 결정적인 사유는(6조) 2세기에서 5세기의 기독교론 논쟁의 정확한 이해를 거쳐서 많은 오류를 수정하고 정리해서 비로소 칼 케톤 신조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 많은 오류 가운데는 인간성만을 말하는 아리우스파의 오류, 인성과 신성의 혼합설을 말하는 그리스도 단성론의 오류,

인성과 신성의 단절을 말하는 네스토 리우스파의 오류 등을 들 수 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넘고 넘어서 '혼합도 아니면서 분리도 아닌' 것으로 고백된 스코틀랜드 신조의 획기적인 성예전론의 전제가 서게 된 것이다.

위(位)와 격(格)을 말하는 이 기독교론은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8조 이하). 구원받을 자의 선택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8조는 '선택에 대해'라는 표제로 선택의 교리를 취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버리심의 교리에는 언급이 없다. 이 선택의 교리는 실제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교리로써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처음엔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낮아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어떤 아무라도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로서 빛을 내면서 구원선택의 교리를 더 이상 시종일관 해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신조는 교회론을 두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즉, 인간론(5조) 가운데 한 번, 또 사도신조의 제 3 내지 제4조의 해석으로써 한 번을 각각 취급하고 있다(16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상교회는 오순절에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세상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의 교회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교회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이 양자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있는 자의 공동체이고 무리들이다(16조).

보이지 않는 교회라 불리우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플라톤적인 대립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져 있다는 지극히 성경신학적 의미에서 채택되고 있다. 플라톤적인 의미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은 이 스코틀랜드 신조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혁과 제신조 전반에 걸쳐 특히 스코틀랜드 신조에 있어서는 더욱 교회는 개별의 교회 규칙을 가지는 교회로서 이런 저런 표식을 가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본질적인 표시로서 스코틀랜드 신조가(18조)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성예전의 올바른 집행과 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교회치리의 엄정한 행사이다. 이 교회치리의 엄정한 집행으로 악이 억제되고 선행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에 관해서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다(18조)라고 성경자신이 먼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바라는 것이다. 성령은 성경의 주체이시고 해석의 주체이기도 하다. 거기에 성경의 통일이 기초되어져 있고 올바른 해석과 참된 설교의 일치가 기초되어져 있다. 회의를 포함해서 교회에 관한 제반 판단을 비판하는 기준은 성경에 관한 성령의

증언이며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행하여 왔으며 또 행하실 것을 명하시 는 일이다' (18조).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되심은 결단코 부가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계는 아니고 언제나 분석적인 관계이며,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이시며 또 다른 경우에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이신 경우가 되어,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령과 그리스도는 동시에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다.

개혁파의 제 신조 중에 스코틀랜드 신조의 성예전의 가르침은 루터의 성예전론에 더욱더 가깝고, 놀랍게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게 접근하고 있다. 만일 지금 특별히 역사를 무시하고 소감을 말할 수 있다면 '루터는 이 성예전을 교회에서 가르치셨다면 동의해 주었을 것이며 아마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다.

이 신조에서 성예전에 관한 가르침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째로 거론할 특징은, 이 신조가 일반적인 성예전 교리를 우선 말하고 그후에 세례와 성찬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성예전 교리를 세례와 성찬에 관한 교리로써 2개 조(21, 22조)로 마무리 짓는 데 있다. 우리들은 성예전은 단순히 표적인 점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천박함을 물리친다. 우리들은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리며 주님의 의에 맡겨지는 자가 되고, 그에 의해 주님은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며 영의 양분이 되는 것이다' (21조). **■**

## 월간고신광고가 '93년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종전의 2도(색) 광고가 내년부터는 칼라광고로 바뀌게 됩니다.

칼라광고는 현재 2도 광고 중, 8면을 특별히 스노우아트용지를 사용, 한층 나은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칼라부분은 30만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도 광고는 종전대로 전면(1P)에 15만원입니다.

앞으로 월간고신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교단 문서 선교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각 기관, 단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월간고신사 광고부

부산시 서구 암남동34  
(고신대학 내)

TEL (051) 257-0045,  
248-0045 (F)